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참깨, 대추 수입허가 신고서 필수 기재 항목 추가

- 호주 농수산부는 참깨에 대한 수입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수입허가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것을 요구, '23년 2월 6일 시행
- 이번 조치는 일부 업체가 식품 안전 관련 사항을 수입업체 자율에 맡기는 규정 준수 기반 개입 제도(Compliance-Based Intervention Scheme CBIS)를 악용하여 일부 부적합한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수입업자와 그 대리인은 다음 질문을 사전에 확인 후 신고해야 함

1) 참깨

-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혹은 껍질을 제거하고 수입하는 이 제품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용도인가?

2) 대추

- 이 상품은 동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함
 - 신선한 대추의 경우 사람이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Phoenix Dactylifera specie(피닉스 닥틸리페라) 품종인가?
 - 건조 대추의 경우 사람이 소비하기 위한 품종으로 분류된 것인가?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1. 스포츠 식품의 카페인 함량 1일 최대 200mg으로 제한 예정

-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은 스포츠 식품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음. 이번 제안은 카페인이 첨가된 스포츠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개인의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임
-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은 스포츠 식품의 총 카페인을 1인 기준 200mg 까지만 허용하고, 다른 식품에 포함된 카페인을 포함하여 1일 최대 400mg을 초과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식품 라벨에 부착할 것을 제안함
- 스포츠 식품은 운동선수들이 특정한 영양 또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제조된 특수 목적 식품으로, 소매 판매용 스포츠 식품에 카페인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제안했음
- 해당 조치는 콜라, 제형 카페인 음료와 같은 특정 제품에 카페인을 허용하는 기존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함. 또한, 케이크나 제과에 커피나 초콜릿을 추가하는 것과 같이 카페인 함유 식품을 다른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 결정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은 카페인이 연령과 인구 집단에 따라 최대 안전 일일 섭취 권장 사항이 있는 물질이라고 강조하고, 식품 기업이 다른 식품에 카페인을 첨가하기를 원한다면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에 별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힘
- 연구에 따르면 일일 210mg 이상의 카페인 복용은 혈압 상승, 혈장 내 카테콜아민 또는 부신 호르몬의 방출 및 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이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또는 발작과 같은 더 심각한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이 기준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최대 6%가 일일 권장 카페인 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고, 카페인이 첨가된 스포츠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출처 :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2023.01)

2. 알코올 음료 라벨에 에너지 함량 정보 표기 제안

-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은 알코올음료 라벨에 에너지 함량 정보를 기재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음. 현재 알코올음료는 에너지 함량을 포함한 영양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은 이번 제안이 적절한 에너지 섭취를 달성하기 위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알코올 음료에 함유된 에너지 함량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출처 :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2022.12)

3. 식품 판매업자 제품별 에너지(칼로리 함량) 정보 외식업체에 제공 필요

- 식품 관련 호주, 뉴질랜드 장관회의에서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코드를 개정하여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에너지 정보를 메뉴판에 표시하여 제공할 것을 결정. 2022년 4월부터 실시하여 주의 필요
- 호주 기존 메뉴 라벨링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메뉴 라벨링에 대한 식품 규제 조치를 개발하는 제안서를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이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식품 규제 상임위원회(FRSC)는 메뉴 라벨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메뉴 라벨링 추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 이번 결정으로 식당 등에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납품 식재료의 영양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함
- 메뉴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성인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 해당 식품(메뉴)의 에너지 함량 등으로,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기재되어야 함

* 출처: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 보건사회복지부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 호주 농림수산부는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에 따라 식별된 수입 부적합 식품을 게시하고 있음. 위험 식품은 100%, 그 외의 식품은 5%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사함. 감시 식품이 검사에서 부적합하다면 통관 보류 명령(holding order)을 적용하며, 해외 생산자가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보류 명령을 유지함

검출일	제품	회사명	수입금지 사유	검출결과	관련규정	검사유형
2023.01.02	핫앤스파이시 라이스누들 (얼큰한 쌀국수 컵라면)	백제 식품	소해면상뇌증 (BSE) 인증서 미비	-	BEF 11/2018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인증서 규정)	위험식품 정기검사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해당없음)